

# 〈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說〉 〈北關州縣沿革始末記〉解題

韓 永 愚

〈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說〉과 〈北關州縣沿革始末記〉는 17세기 후반기의 少論學者인 李世龜(1646~1700)의 文集 《養窩集》에 수록되어 있다.

李世龜는 선조때 領議政을 지낸 李恒福의 曾孫이자, 英祖때 領議政을 지낸 李光佐의 父親이기도 하다. 李世龜 자신은 벼슬이 숙종때 司憲掌令에 그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 아니었으나, 朴世采·尹拯 등과 더불어 少論系 要人의 한 사람이었고, 특히 그의 아들 光佐는 英祖때 少論의 領袖로서 크게 활약한 바 있다.

李世龜는 公州牧使를 지낸 李時顯의 獨子로 태어났는데, 貫鄉은 慶州이고, 故鄉은 忠淸道 鴻山(扶餘)이며, 생활근거지는 京畿道 驪州였다. 養窩는 그의 號다. 그는 26세 되던 1672년(현종 13)에 進士試에 합격했을 뿐 文科에는 합격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驪州에 退居하여 經學研究에 전념했는데 특히 心學에 밝았다 한다.

李世龜는 39세 되던 1685년(숙종 11)에 蔭補로 景陽道 察訪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49세 되던 1695년(숙종 21)에 禮山縣監에 제수되었으며, 다음 해 6月에는 李世弼·鄭齊斗·李喜朝·閔以升·李箕疇·朴鐔·金昌翁 등과 더불어 書筵官으로 추천되었고, 그해 12月에 司憲府 持平(正 5品)으로 승진했다. 다시 51세 되던 1697년(숙종 23)에는 司憲府 掌令(正 4品)으로 올라가고, 洪州牧使를 잠시 거친 뒤에, 1698년 12月에 또다시 掌令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그의 官路는 掌令을 끝으로 하고 1700년(숙종 26)에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死後에 아들 光佐의 공으로 領議政에 追贈되었으며, 忠淸道 洪州의 惠學書院에 祭享되었다.

그는 尹拯·南九萬·朴世采 등 少論系 學人들과 書信을 왕래하면서 유교 경전에 관한 意見을 교환했는데, 自得의 대목이 많아 儒學者로서도 一家를 이루었다. 특히 그의 저술 중에서 注目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北方의 역사에 관한 一連의 논설이다. 1691년(숙종 17)에는 關東의 四郡지방을 여행하

고 돌아와 〈遊四郡錄〉을 지었으며, 1699년(숙종 25)에는 〈北關州縣沿革始末記〉를 썼다. 그리고 그의 역사에 관한 저술 중 白眉를 이루는 것은 편찬년대가 不明한 〈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說〉이다. 아마 이 논설은 그의 末年의 作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少論系 學人의 역사서술로서는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글은 한 마디로, 17세기 초의 南人學者인 韓百謙의 《東國地理誌》(1614~1615)에 피력된 三韓·四郡의 位置考證을 卓見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더욱 깊이있게 천착하여 三韓·四郡의 역사를 한층 세밀하게 고증한 글이다.

원래, 三韓·四郡의 위치에 대해서는 崔致遠說이 定說로 믿어져 오다가 조선초기에 權近이 이를 비판하고 새 學說을 내었는데, 《東國輿地勝覽》에서는 다시금 崔致遠說로 돌아가, 이것이 16세기에는 通說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崔致遠說은 辰韓→新羅, 馬韓→高句麗, 下韓→百濟로 보는 것이고, 權近說은 馬韓→百濟, 下韓→高句麗, 辰韓→新羅로 보는 것으로, 馬韓과 下韓에 대한 해석이 崔致遠과 다르다. 그런데 三韓이 뒤에 三國이 되었다는 입장은 최치원과 권근이 서로 일치하고, 이 입장을 따를 경우, 漢四郡과 三韓의 일부가 서로 지역적으로 겹치게 되어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韓百謙의 三韓說은 이와같은 모순을 시정하여, 三韓은 漢江 남쪽에만 있었고(馬韓=百濟, 辰韓=新羅, 下韓=伽倻), 四郡은 漢江 이북에 있어, 이른바 「北自北 南自南」의 형세로 四郡과 三韓이 동시에 北과 南에 並立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韓百謙의 주장이 17세기초에 나온 이래로 學者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反應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를 최초로 挾錢으로 인정하고 나선 것이 柳馨遠과 李世龜다.

그러나, 이세귀는 한백겸의 三韓·四郡說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한백겸이 해결하지 못한 上古史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三韓 중 馬韓은 箕準에 의해 처음 세워진 것이 아니라, 箕準이 南遷하기 이전에도 馬韓이 있었고, 箕氏가 망한 뒤에도 馬韓人이 自立하여 辰壬이 되었다(陳志와 通攷).

둘째, 下韓과 伽倻는 지역적으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下韓의 남쪽에 伽倻가 있었다.

세째, 四郡이 뒤에 二府가 되었다는 주장은 잘못이며, 二府가 실사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는 압록강 西北에, 또 하나는 압록강 東南에 있었다고 모아야 한다. 黃海道 平山에 平州都督府가 있었다는 통설은 잘못이다.

네째, 帶水는 猪灘江 부근, 帶方은 황해도에 있으며, 尹瓘이 세운 先春嶺 碑는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었다.

다섯째, 漢四郡 중 玄菟는 처음에 沃沮(함경도)에 있었다가 뒤에 高句麗 서북지방으로 옮겼으며, 眞番은 압록강 북쪽에 있었다.

이밖에도 〈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說〉에서는 扶餘·挹婁·濊貊·沃沮·渤海·契丹·女眞·駕洛·州胡國·儋羅國의 정치·풍속·산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논설은 歷史地理考證에 큰 비중을 두고 上古史를 폭넓게 정리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으며, 中國側 史書와 우리나라 史書를 비교 검토하면서 엄밀한 文獻考證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韓百謙의 《東國地理志》와 비슷하다.

이세귀가 제시한 여러 創見들은 뒷날 通說화된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馬韓이 세번 있었다는 소위 三馬韓說과 二府否認說 등은 18세기말~19세기초의 史書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玄菟가 함경도에서 高句麗지방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이나 眞番이 압록강 북쪽에 있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다만, 후세 학자들이 이세귀의 저술을 읽고 그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후세 학자들의 독자적 연구가 우연히 결론의 일치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세귀의 글을 직접 인용하는 학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다음에, 이세귀의 또 다른 논설인 〈北關州縣沿革始末記〉는 咸鏡道地方의 역사를 적은 것으로, 옛날 沃沮에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고려·조선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 논설은 앞의 〈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說〉만큼 밀도있는 연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北方地域에 대한 李世龜의 관심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함께 참고되어야 할 자료이다.

끝으로, 이번 영인한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의 養窩集(규 3416)을 이용했음을 밝혀둔다.

(필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養正高集

十三

奎  
3428  
401  
13

h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圖書番號 3416
	一部册數 13
	內別番號 13

軾撰三國史地理誌取孤雲之說我朝梁誠之盧思  
慎徐居正等撰東國輿地勝覽從孤雲亦論以慶尚  
道屬辰韓京畿忠清黃海道係于馬韓以全羅道  
係于卞韓而取三國遺事麗地有馬邑山故補馬韓  
濟地有卞山故補卞韓之說為僞證徐居正等撰東  
國通鑑其叙三韓也引陽村之言以益山箕準城為  
馬韓為百濟之驗而卞韓在南諉以遼東之南一得  
一失自不相掩吳斯文湮撰東史纂要亦襲陽村之  
說俱不免承訛襲謬而不究其實良可歎也近世有  
韓久庵伯謙東史纂要後叙以為四郡在北三韓在

敢好異而苟同也。大抵四郡之前有三朝鮮。唐堯戊

辰之歲，神人降于太白山。

即穿邊  
妙香山

檀木下都平壤是

為檀君朝鮮。終於高戊丁八年，見於東國史略。及通

鑑而皆據古記為說。周武王克商，箕子入朝鮮，因而

封之。都平壤，是為箕子朝鮮。

或稱漢朝鮮  
已上東史

至漢孫當

六國時，燕遣將秦開攻取其西二千餘里，以滿浦汗

為界。

漢書地理志：遼東郡有滿汗縣，縣有師  
水。師，洙，齊，桐，近，疑，洙，水，也。滿汗，音，盪，寒。

朝鮮遂

弱秦，等長城，抵遼東。四十代孫否畏秦，脈係統屬遼

東外徼，及漢興，奉子事，與燕王，館以洙水。

統，鴨  
水

為界。

為衛滿所逐，南奔，衛滿者，燕人，亡命，夷服，東走，渡洙。

樂浪郡戶六萬二千八百一十縣二十五朝鮮封武王

子於誨郡誨音須水水西至增合資帶水西至黏婁

提音遂成增地帶方泗望海冥刊口漢書刊長岑也

有昭明南郡都隸方提矣渾彌吞列東施音不而東

都尉吞台華邪頭昧夫祖漢書樂浪郡洛陽東

下大城而添樂都屬幽州文獻通攷漢樂浪至魏為

公孫氏所據西晉永嘉以後漢海入高麗其不耐也

有帶才安市平郭安平居龍天城也夫三朝鮮皆都

平壤漢以朝鮮地為四郡後以臨屯合樂浪以真番

合玄菟樂浪為平壤其刊口等縣皆遼東地其涓水

等縣皆關西平安地臨屯為江陵扶嶺東西諸郡皆

傳始叙三韓曰韓有三種馬韓在西有五十四國其  
北與樂浪南與倭接辰韓在東十有二國其北與濊  
貊接弁辰在辰韓之南亦十二國其南亦與倭接凡  
七十八國百濟是其一國大者萬餘戶小者數千家  
地合方四千餘里東西以海為限皆古之辰國也諸  
國王先皆是馬韓種人辰韓耆老言秦之亡人避苦  
役適韓焉韓人割東界地與之故名之為秦韓弁  
辰與辰韓雜居城郭衣服皆同言語風俗有異初朝  
鮮王準為衛滿所破將其餘東走入海攻焉韓破之  
自立為韓王準後滅絕焉韓人復自立為辰王夫馬



國志馬韓五十餘國爰襄國牟水國素外國小石索  
國大石索國優休牟涿國臣漬沽國伯濟國速虜不  
斯國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怒藍國月支國咨離  
牟盧國素謂乾國古爰國莫盧國卑離國占離卑國  
臣蒙國支侵國狗盧國卑彌國監矣卑離國古蒲國  
致利鞞國冉路國兒林國駟盧國內卑離國感矣國  
萬盧國辟卑離國白斯烏旦國一離國不彌國支半  
國狗素國捷盧國牟盧卑離國臣菴查國莫盧國古  
臘國臨素半國臣雲新國如來卑離國楚山塗卑離  
國一難國狗英國不雲國不斯漬邪國爰池國乾馬

其北崖狗邪漢國

即後漢書倭傳狗邪韓國

七千餘里始度一海

千餘里至對馬國蓋狗邪韓國即弁辰狗邪國也其

所謂歷韓國卞南者自帶方至我國湖南地方也卞

東者自湖南至嶺南地方也至其北崖狗邪國者狗

邪正在倭國滿海之北崖也今金海府在嶺南南滿

海定一名伽椰似是狗邪也瀆虛與倭接界狗邪當

倭海入水之路而俱是弁韓之地則弁韓在辰韓之

南沿海一帶可知也三國史新羅紀辰韓六郡推赫

居世為君十九年卞韓以國未降三十八年馬韓王

讓瓠公曰辰弁二韓為我屬國不修職貢又云中國

柵而馬韓以侵封疆讓之然則馬韓在公州以南之

地當初封域僅及於漢水之南而割與百濟遂以熊

津為界也其後百濟定疆域北至湍河一勝覽云湍江百濟

疑北至湍河是則百濟所開拓而非馬韓之舊界也

大都與漢史相符攷諸漢史既如彼叅之東史又若

此北有四郡南有三韓界限不亂而馬韓在西其界

自全羅忠清兩道北及漢水之南辰卞而韓在東而

中分慶尚一道北為辰韓而島竹嶺為其北界南為

卞韓而倭海為其南界壤地相錯也其亦彰明較著

更無可疑者矣或者曰按三國史馬韓之三在百濟

時辰韓之亡已久豈有八國之可割者耶詳見論成

者曰四郡三韓之說子之言實有所據矣四郡之前

有滄海郡四郡合為二郡之後又有二府及帶方昌

黎遼東諸郡及安東都護府復城摠管東寧府鐵嶺

衛熊津五府三韓之後又有新羅百濟高句麗三國

三國之後又有高麗而北界則我朝又開拓府郡之

沿革三國之界至皆可歷指歟曰按前漢書武帝紀

元朔元年東夷歲君南閩等口二十八萬人降為滄

海郡三年春罷後書濊傳南閩等畔朝鮮王右渠詣

遼東內屬以其地為滄海郡勝覽江陵府本濊國古

真番必在平壤迤西之地與玄菟合也此似據勝覽  
註而為說也然平郡之為真番未有的據而真番本  
在鴨綠江外不可移認於平山勝覽既以平郡山而  
誤認平川久庵又因勝覽而輒轉再與耶况玄菟初  
在沃沮後移勾麗平山玄菟之間初則臨屯間之後  
則樂浪間之烏得相合而為平州都督府乎按晉書  
地志平州在烏貢為冀州於周為幽州漢屬右北平  
後漢末公孫度稱平州牧魏分遼東昌黎玄菟帶方  
樂浪五郡為平州是知平州都督府當在平州界中  
也樂浪臨屯在平州府之東故謂之東府都督府也

於我東亦明矣帶方郡則三國志云韓在帶方東倭

在帶方東南桓靈之末民多流入韓國獻帝建安中

公孫康分屯有通攷云分屯縣以南荒地為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伐韓濊收集遺民是後倭韓屬帶

方魏景初中審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擊嗣越

海之二郡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部從事吳林

以樂浪本統韓國分辰韓八國以與樂浪臣智激韓

忿攻帶方郡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晉書地理志帶方統縣七戶四千帶方列口

南新勝覽云義州一名咸新咸長岑提奚舍資海冥

南勝覽云義州一名咸新咸長岑提奚舍資海冥

遣兵越海定二郡者想是開郡於濟羅之境故有此

潛襲之舉也劉辰韓八國以與樂浪遂致急兵弓道

戰歿云而致諸三國史高句麗東川王十一年百濟

古爾王四年新羅助賁王八年皆當景初而事實無

相符者高句麗太祖王九十四年實帝末初元年襲遼東西

安平縣故帶方令時未及置郡是掠得樂浪太守妻

子東川王二十年遼中為魏母丘儉所破古爾王十

三年正始中母丘儉與樂浪太守劉茂期方太守王道

伐高句麗王來虛襲樂浪遼民茂怒王怒見侵還其

民口而已勝覽云南原府漢廷安中為帶方郡曹魏

此二可疑也然百濟自威德王以下中朝封爵皆帶  
帶方郡此則或因其侷近而封之但唐書地志平百  
濟以其地置五都督府并置帶方州列傳以劉仁軌  
為帶方州刺史帶方若不在百濟境內則豈有帶方  
州刺史也又新羅基臨王三年樂浪帶方兩國歸服  
若相去隔遠則越百濟而降附似無其理莫究其由  
也或是建安置郡則其域在樂浪之南即今海西道  
道等處而景初越海所置乃是南原之帶方故勝覽  
亦稱南帶方以別於北帶方而所謂涇帶之帶嬰女  
之帶方皆是北帶而仁軌之所領新羅之歸服則是



守及諸州守叛降于元世祖忽必烈七年元以西京為東寧

府盡巴山嶺今瑞興縣為界所謂鐵嶺街者 皇明洪

武二十一年辛酉以鐵嶺造址舊屬于元命歸之

遼東欲立鐵嶺街旋寢之送朴宜中表陳遂獲其誠至於熊津五

府乃馬韓舊地非四郡之界也唐顯慶五年遣蘇定

方并發新羅兵越海伐百濟執義慈王扶餘隆平其

國五部三十七郡二百城置熊津馬韓東明金湍德

安五都督府前後事實在唐書高麗百濟著傳矣若

夫三國則新羅居西干辰言林居世姓朴氏漢宣帝

五鳳元年起於辰韓之地六郡推為君十九年下韓

年吐滇

改今江

人耕田得藏王印獻之儒理王十七年

華麗不耐二縣人北吐邊貊國渠帥以兵要曲河敗

之王與貊國結好其後貊人或來獻馬韓則始祖時

通好脫解昔王五年馬韓將孟台以覆岩城降其後

更不察見韃鞨則祇摩朴王十四年始入吐境殺掠

又襲大嶺柵過泥河其後屢襲長嶺柵戢悉直今三

之原慈悲金玉以後與勾麗同寇始知金玉三年同

入吐邊取孤鳴等七城進軍彌袂夫今興海我軍與百

濟伽耶援兵分禦破之泥河西太宗金玉五年以何

瑟羅今江陵池連韃鞨罷京置州伽耶在南自脫解王

使三十四年宋文帝元嘉二十七年 句麗邊將獵於悉直之原

何瑟羅城主掩殺之怒侵西邊又侵北邊善德金主

七年唐貞觀十二年 句麗侵北邊七重城今積城 敗之太宗王

七年請兵於唐以平百濟其子文武王法敏八年助

唐滅高句麗遂得百濟故地及句麗南邊諸郡遂置

九州本國界內三州曰尚州曰良州今榮山 曰康州今

州百濟國界內三州曰熊州今公州 曰全州曰武州今

州高句麗南界三州曰漢州今廣州 曰朔州今春州 曰溟

州今江陵 所管郡縣四百五十蓋其國初北以長嶺為

界是太白山南枝沿海一帶也竹嶺之路何建王時

年順二宗尊僧金弓裔憲安王子庶子或云景叛投群盜

竊據嶺東西道江原湖西山忠州清州杞畿甸道京畿西

平壤等十地三鎮諸郡以及嶺南十餘州等三都鐵圓國號

震摩後改泰封又自稱後高麗又遣王達從水路取

羅州六年尚州人甄萱聚徒竊據三南忠全羅度尚諸

郡都完山全自稱後百濟及通中國後唐越國受封爵

與弓裔爭強景明朴王二年弓裔部下推戴高麗太

祖王建裔走死十竊據八年景哀朴王四年甄萱襲八

王都王遇害遣兵舡八高麗禮成江取鹽安今白白今

川貞齡豐三州新羅已後敬順王金傳九年後清路

苻人國滅北沃沮瑠瑯王伐降鮮卑為屬國二十二

年遷都國內等尉那岩城勝覽長州戰國內城三國

目錄國內城載鴨綠以北文獻通考高句麗鴨綠水經國內城南勝覽為誤大武神王擊

扶餘殺其王帶素滅蓋馬國降勾茶國十五年樂浪

王在理降二十年襲滅之二十七年漢光武遣兵渡

海伐取樂浪為郡縣薩水以南屬漢太祖王三年等

連西十城以備漢四年漢中元元年伐取東沃沮為城邑

振境東至滄海南至薩水四十六年東巡柵城山上

五十三年移都於丸都東川王二十年魏正始七年魏遣

幽州刺史毋丘儉出去菟來侵王遂戰沸流水上敗

城東北自扶餘東南至海唐書云南屬之海蓋其盛時地步

最廣東北至咸鏡道南及畿甸暨湖西初面東南過

竹嶺之東南以及沿海清河以北諸郡縣北過鴨綠

西及遼水其州郡縣共一百六十四王歲二年唐帝

太宗親征討蓋蘇文弑君拔蓋牟城為蓋州遼東城為

遼州白崖城為岩州次安市城班師二十六年唐遣

李世勣東伐新羅亦助攻遂合二十八王曆年七

百五年大抵其立國初在鴨江之北故後漢書以朝

鮮濊貊為南至朝鮮即漢之四郡也太祖王時斥境

南至薩水而羅濟則未能相通二郡隔之故也至都

句麗屢為遷徙初晚若異國焉初以朝鮮為南界中以薩水為南界終以畿湖為南界不可執一而論之  
沸流江雖未能的知在處三國史故國川王時方都  
國內城其尤拔竒怨不得立將下戶三萬詣遼東公  
孫康降還住沸流水上沸流在國內之西可知也東  
川王時方都九都城魏師來伐遂戰於沸流水上又  
戰潰王奔鴨綠原儉屠九都城沸流在鴨綠九都之  
西可知也蓋國未九都俱在鴨江西北也然則成川  
適有川水流入石穴沸出故謂之沸流而認為卒本  
之沸流紇骨松壤因此輾轉指認寧邊之香山一名

糜之使屬玄菟其種或依大水而居

見三國志

朱蒙逃至

其處亦依小水立國冒其號而合二水之地也三國

史高句麗瑠璃王三十三年當新莽時西代滅貊梁

國進兵襲取漢高句麗縣縣與國為兩高句麗亦明

矣或者曰平壤城長安城之同異可得聞歟曰唐書

云平壤亦名長安城而三國史云長壽王移都平壤

至平原王移都長安城城雖相近而其非一處可知

也金富軾已論於地志矣或者曰里諺相傳以安市

城為平壤者何歟曰前漢志遼東郡有安市險瀆險

瀆即平壤也唐書鴨綠水西南至安市八海而平壤



八年未圍慰禮城秋等馬首城登瓶山柵樂浪太守  
使告曰聘問結好義同一家今逼我疆造立城柵其  
有蚕食之謀乎十一年樂浪使韃鞨襲破瓶山柵設  
禿山柵川兩柵以塞樂浪之路其後連與韃鞨樂浪  
相侵伐十三年畫定疆場址至須河南限熊川西窮  
大海東極走壤十四年移都南漢二十六年襲馬韓  
并其國四十年南沃沮二十餘家至芥壤納款王安  
置漢山之西至于多婁王以浚始與新羅相侵攻古  
尚王二年新羅王親率精騎奄至漢水稽責王十三  
年漢與貊人來侵王遇害迨肖古王二十四年

羅三路州郡縣共一百四十七與句麗相攻麗得樂浪之地也與倭相通濟之南界至于海也大抵見其與隣國相控則可以知其四至也此則三國皆然矣高麗則太祖王建臣事弓裔以浚梁貞明四年為諸將推立都松岳郡今開城府浚晉天福元年新羅降統合三國之地西北以鴨綠為界東北至咸鏡道東南則限大海新羅之末三國分爭北界丘墟女真乘間據有鴨綠江內外光宗取之等嘉州今嘉山松城等城成宗十年逐出白頭山外居之又遣徐熙逐之十三年城長興歸化二鎮郭龜二州四年城安義興化在鎮

開防起自西海濱鴨江八處東跨威遠州鎮在義州東南興化

靜州傍在威遠近寧海寧德州鎮在義州東南寧朔州鎮在朔州西雲州雲今

山安水川今介清塞川今熙平虜寧遠定戎孟州朔州等

十三城抵耀德在永靜邊和州並上等三城東傳于

海凡千餘里石城高厚十五尺朔方道咸州以北為

東女真打即阿骨所據睿宗二年宋大觀遣尹權異運

罷逐女真置九城咸咸英州吉雄州吉福川瑞宜乃德原也

等城通六州公嶮在豆滿通泰平戎三鎮也立碑於

公嶮鎮之先春嶺在豆滿以為界女真連歲八寇

又請和四年撤九城宜撤還于女真高宗時北元納東

胡地乍得旋失而成興以址則終王氏之世不得更

窺公嶮先春嶺傳其名何可論其地界耶至於

我國則有大焉 太祖康獻大王肇開洪基以巨瀉

江為界爰置孔北州 甌甌城 吉吉州 端端川 青青北 洪洪洪 咸咸原

興咸七州其後藩胡間或入處於甌城以址空地 世

宗大五明浙赫然十七年大明宣遣金宗瑞又新設

會會鍾鍾成成興興穩穩成成四邑以址北關以限殊俗夫大

江高山天所以限南北也東界豆滿西界鴨綠白頭

山以南永絕胡塵遂為萬世金湯之固規模宏遠度

越前代矣或者曰予之說然矣夫餘兩沃沮挹婁棘

史 夫餘本屬玄菟漢末公孫度雄張海東尉仇台更

屬遼東時勾麗鮮卑強度以夫餘在二虜之間妻以

宗女魏母丘儉討勾麗王佗居休軍糧三國後晉志大

年為慕容廆所襲破王依慮自殺子弟保沃沮東夷

校尉何龕以兵送王依羅復國廆掠其種人賣於中

國帝愍之詔下司冀二州禁市夫餘之口晉書自後無

聞通典蓋夫餘之地在最北而武帝開郡之前已有其

國遷史貨殖傳云上谷遼東北鄰烏桓夫餘此為一

證矣東沃沮國在高句麗蓋通典馬大山之東山在

西城東濱大海北與挹婁夫餘南與濊貊接其地東西

屬句麗句麗以其大人為使者使相主備責其租稅

千里擔負數之毋以儉討句麗句麗王官奔沃沮進

師擊之邑落皆破官奔北沃沮蓋沃沮是咸鏡道地

而其北道為北沃沮矣挹婁古書慎之國也後漢書左

不成山北通典夫餘東北千餘里東瀕大海南與北沃

沮接不知其北所極後漢書廣袤千餘里土地多山險

車馬不通通典無君長其邑落各有大人處於山林之

間土氣極寒常穴居以深為貴大家至接九梯矢用

楛長一尺八寸青石為鏃後漢書其利入鐵晉書隣國畏

弓矢三國志周武王及成王時皆貢楛矢石砮晉書自漢

東二千里南與新羅以泥河為境東窮海西契丹等  
城郭以居高麗遺殘稍歸之乞乞仲象保太白山之  
東北其子祚榮自號震國地方五千里戶十餘萬勝  
兵數萬盡得扶餘沃沮并韓朝鮮海北諸國中宗時  
遣子入侍睿宗先天中拜為渤海王始去靺鞨號開  
元時其王武藝率海賊攻登州其後至咸通時來朝  
獻遂為海東咸國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以肅慎  
故地為上京曰龍泉府其南為中京曰顯德府濊貊  
故地為東京曰龍原府亦曰柘城府沃沮故地為南  
京曰南海府高麗故地為西京曰鴨綠府長嶺府扶

附宗籍授元甫守白州以奉其祀為麓女真乃古肅

慎氏世居混同江之東長白山鴨綠水之源南隣高

麗北接室韋西界渤海鐵甸東瀕海濱漢謂之挹婁

元魏謂之勿吉隋唐謂之靺鞨其族有六部黑水部

即今女真其水拘之則色微黑目為混同江蓋自五

代時始稱女真女真外又有五國鐵勒噴訥玩突怕

忽咳里沒與女真接境通常女真時西直契丹南直

高麗自鴨綠江外橫亘亘滿江北流契丹東京至高

麗安北府今安鴨江內外數百里之地亦為生女真

所據睿帝契丹及高麗每來朝以麋金貂皮良馬為



勅里鉢季曰盈歌最雄傑盈歌死勅里鉢長子烏鴉  
東嗣位烏鴉東卒弟阿骨打立是金太祖也其部落  
入據咸興以北稱東蕃朝獻相繼時或寇鈔又以海  
路八嶺東以及清河延日等處爲麗濬宗達尹瓘擊  
逐女真開九城女真使東弗史顯等來朝奏曰昔我  
太師盈歌嘗言我祖宗出自大邦至于子孫義合鄰  
附今太師烏鴉東亦以大邦爲父母之國故使我未  
請舊地若逐九城使安生業則世世子孫恪修世貢  
遂遷之已上據馬龍史蓋其國本在兩江之北以西女真入  
處安州以北被高麗驅出東女真入處咸州以北至

大郎酋耶律何保機建鼓旗大賀氏遂亡唐天祐

丁卯阿保機借號高麗太祖七年後晉天祐七年契丹主德

光遣使送索駝流其使絕之成宗十二年宋淳化四年契

丹蕭遜寧攻安北鎮遣徐熙請和顯宗時契丹主自

將米戡康兆王南奔又以不親朝來索六城與北通

鐵州鄆州連歲來侵且相勝負遂更和又欲過鴨綠為

界設城於抱川今義州東定或置橋城或置弓口柵子

睿宗十二年宋政和七年耶律寧為金兵所襲率官民泛

海道歸我來遠抱州二城已上據罷滅吐與高句麗

沃沮南與辰韓接東窮大海西至樂浪後漢今朝鮮

詞如中華人為通典江陵為葢國春川為貊國勝覽新羅

儒理王時貊國帥以兵要牟龍不耐之人犯其地境

者於田河敗之其後又獵得禽獻於新羅又百濟

責措王時漢與貊人來侵勾龍太祖王三與濊貊攻

漢去苑遠東等城遠東太守蔡諷等亦來侵擊殺濊

貊帥三國史濊漢書勾龍一名貊耳有別種依小水名

曰小水貊王莽誘斬勾龍侯更名焉勾龍王為下勾

龍侯貊人寇遼愈甚夫餘國有濊城本濊貊之地三國

志蓋濊貊之都在江陵春川其種落散處亦有居焉

綵西北者而通謂之濊貊夫餘勾龍之初亦冒穢貊

耶山西南際大海西北至智異山

史為龍

金海首露王

姓金氏為駕洛國主又有五人各主五伽耶乃新羅

儒理王十八年也

史為龍

駕洛後改為金官國

史為龍

首露

王赴新羅慶婁王之召決音汗伐悉直谷兩國爭疆

之事

史三國

傳國四百九十一至几代孫友仇降于新

羅法興王

史為龍

伽耶屢侵新羅南部互相侵伐殆無

虞歲奈解王時伽耶請祀送王子為質真興王時伽

耶叛遣異斯夫討降之

史三國

蓋金官伽耶俱是嶺南

南遼沿海一帶而延及西隣智異山一帶矣州胡國

在焉韓之西海中大嶼上其人短小言語不與韓同

百餘里漢弩為鎮山在州南二俗朴陋衣大豕夏

居草室冬窟屈耕不用牛以鐵齒掘土唐初有良乙

那高乙那夫乙那三人分處其地新羅時高厚與其

弟二人渡海朝新羅羅王號厚曰呈王其仲曰王子

其季曰都內賜國號曰耽羅遂以高為呈王良為王

子夫為徙上浚改良為梁其浚服事百濟百濟東城

王二十年以不修貢賦親証乞罪乃止百濟既滅新

羅文武王元年來朝新羅唐龍朔初其王儒季都

羅遣使朝唐麟德中酋長又朝唐從帝至太山唐高

麗太祖二十年遣太子末世來朝肅宗十年改七羅

滅之 本朝太宗二年高鳳禮文志世等以星主五

子之號涉借擬請改之以星主為左都知管王子為

右都知管十六年柝溪等山南幅負九十餘里之地

東為旌義西為大靜俱置縣監 世祖十二年改安

撫使為兵馬水軍節制使後改收使官員收使判官

教授各一人二縣亦各有教授州城內無水城南大

石穴水湧出截流別等重城由三邑出陸者皆候風

于朝天都 在州東二 涯月浦 在州西四 并興金寧浦

在州東五 都近川 在州西六十里 明月浦 在州西六十里 皆置防護

所留鎮軍卒以守之又有利防城 在州東七十三里

蓋水路凡百里云大抵東方諸國鴨綠江外最北為  
夫餘其地極亘遼東北傲之外東與挹婁為界次北  
為高句麗其地橫亘遼東之北傲東與北沃沮為界  
秦漢之時為東夷部落屬於朝鮮四郡既開玄菟陸  
徒為其屬縣朱蒙南奔亦開國于其地襲高麗之號  
遂有國與縣之別矣又次北為真番其地在遼東之  
東北秦漢以前為東夷小國屬於朝鮮漢開四郡為  
真番郡故前漢地理志云上谷遼東北陳陳餘烏桓  
夫餘東賈真番之利已上三城俱係鴨綠之北矣稍  
南為濊浪其地在鴨綠之南朝鮮舊都橫亘鴨綠之

尚道至於三國時則疆域漸狹勾麗漸徙而南樂浪  
帶方漸徙而西其末也時江東南樂浪之界勾麗盡  
有之矣新羅初起辰下之域漸為開斥盡有辰亦又  
地及其盛也又得藏獬之地侵及沃沮樂浪又南界  
百濟起於馬韓又東北盡有馬韓之地蓋如耶是下  
韓之南鄙而貽羅則又是馬韓又極南徼外矣或有  
曰子之論諸國疆域可謂詳矣諸史諸家之茫然處  
若不指摘論又恐誤後學幸為我悉陳又曰諸史諸  
家互有得失難以縷指而其大段遲疑處則亦可以  
言之矣其所得失既論於各條之下而撮而言之夫



至鴨綠在立國其後王是尉仇台三國史具載始末  
尉仇台為公孫康妹婿與漢兵同拒句麗之寇云其  
遠東者杜佑徒知百濟之先出於夫餘而尉仇台  
顯中國故不知年代先後而未克為胡說也東明  
名朱蒙通典萬句麗傳叙朱蒙事甚詳而夫餘傳則  
以東明各出有後二人各為兩國始祖者此又杜公  
攷之不詳也通攷則襲通典之誤而其母不夫而晉  
神怪之事亦兩出之此又馬端臨之重誤也且范史  
高句麗傳云凡有五族仍叙五部及武帝滅朝鮮以  
高句麗為縣事其下又別立小水貊傳云句麗一名

為箕氏歷年之數其為無稽甚矣崔孤雲之以馬韓  
為麗以下韓為濟推陽材之以下韓為麗之失既已  
論之三國史勝覽取孤雲之說而金富軾則於百濟  
本紀載馬韓與溫祿以熊川柵為界之事而地志則  
取孤雲自相運庭蓋本紀刪泐古紀而地志則自為  
說故也勝覽用孤雲說以全羅道保下韓以黃海京  
畿忠清道保馬韓而平安道則亦不敢係于馬韓蓋  
平壤為三朝鮮都舊跡甚明故不敢拖引亦不得純  
用孤雲而終不悟四郡三韓之各異其域可謂惑之  
甚者矣東國通鑑及纂要泐陽材說徐居正一人泰

意者東方天獻不足微而中原全史其時未及畫為  
東來故見聞不足而然耶歸久庵生於數千載之下  
的然知四郡在址三韓在南而其論三南界分不差  
可謂攷之詳而見之卓也然言焉韓從箕準而始似  
襲東史之舊至論四郡頓踈謂真番必在平壤迤西  
之地是又欠照管處也真番不在鴨江之北而此沃  
沮陝絕北八與真番地勢正相等玄菟初治沃沮城  
故與之相合漢徙高句麗西北亦與真番地界相連  
矣或者曰子叙諸國必列陳隣境以見其四至此亦  
一法也至於物產之有無風俗之同異政教之沿革

倭男子亦有文身者其北方近郡差曉禮俗不知騎  
乘牛馬牛馬盡於送死辰韓土宜五穀知蚕桑作繭  
布以鐵為貨鐵馬韓皆市之有城柵屋室諸邑各有  
渠帥大者名臣智次儉剛次樸柢次殺美次邑借其  
名物有似茶語其俗嫁聚以覆男女有別乘駕牛馬  
行者謀賂又喜歌舞飲酒鼓瑟兒生使以瓦壓頭欲  
其扁以大馬羽送死便步踐兵仗與馬韓同平韓與  
辰同祭祀鬼神有異作履幅細布其人形長大髮髮  
用法嚴峻其國近倭故頗有文身者

巴上批後漢書三國志

郡則民物政俗雜不可放本朝鮮故地箕子教其民

持之言語法俗大抵與刁龍同亦被箕子之教東沃  
沮宜五穀善田種少牛馬其祖祝願布魚鹽海中多  
食物人性質直強勇便持矛步戰言語居處衣服有  
似刁龍其葬作大木槨長十餘丈開戶一頭舉家共  
一槨列木如王隨死者為穀其俗南土皆同挹婁有  
五穀麻布出赤玉好貂白兔白鷹有監泉氣蒸鹽凝  
樹顛無牛羊有車馬好養豚食肉衣皮以膏塗身以  
禦冬寒夏裸袒以尺布蔽其前後人似夫餘言語  
各異其人不潔作側於中國之而居以溺塗面其家  
少而勇力善射弓長四尺其刀如弩楛矢石鏃便乘

奴婢竊盜一責十二男女淫婦人姪皆殺又然兄死  
妻嫂與同奴同俗以弓矢刀矛為兵家家自有鎗杖  
有敵請加自戕下戶搥糠殺牛以占蹄解者為凶合  
者為吉其死夏月皆用冰停喪五月以久為榮祭有  
生有熟厚葬殺人殉葬多者百數居喪男女皆純白  
婦人布而衣去環珮已上漢書三國志渤海土產所貴者有  
太白山之菟南海之昆布柶城之豉扶餘之鹿鄭頤  
之豕率賓之馬顯州之布沃州之綿龍州之袖位城  
之鐵盧城之稻漕沈湖之鮑果有九都之李樂游之  
梨風俗與高麗契丹哈等謂其王曰可毒夫曰取去

國東有大穴號擬神亦迎祭其人性凶惡喜寇鈔其  
國中大家不佃作坐食者萬餘口下戶達捃米糧且  
鹽供給之無大倉庫家家自有小倉名之為枵京其  
人潔清自喜善蒺藜暮夜男女羣聚歌戲跪拜申一  
鄰其婚姻皆能婦家止子長大然後將選使稍管選  
終之具余銀財幣盡於厚乘積后為封亦種松栢燕  
宰穢有罪諸如評議便殺之已上乃古初勾麗部恭  
及米蒙勾麗中川王以上之事也唐書云官九十二  
級曰大對盧曰贊折曰太大使者曰帛衣頭大兄曰  
大使者曰大兄曰上位使者曰諸兄曰小使者曰過

拾遺此是中葉以後之事也百濟五穀果蔬酒饌樂  
鬼之屬多同內地唯無脫豚羊鵝鴨賦稅以布絹麻  
米通典俗重騎射兼凌墳史又解陰陽醫卜投壺蒲奕  
有僧尼而無道士有三箇生黃漆色若金大姓有八  
族通政國初有左右輔古尔王時定官制置內臣內頭  
內法衛士朝廷兵官凡六佐平並一品達恩德并奈  
凡五率二品至六品持苑園寺對凡五德七品至十  
一品文武二督十二三品佐軍十四品振武十五品  
克虞十六品自六品已上服紫以銀花錦冠十一品  
已上服緋十六品以上服青王服紫大袖袍青錦袴



手批地為恭唐書其建官以親屬為上王族為第一骨

凡弟女姑姊從姊妹皆聘為妻生子皆為第一骨不

娶弟二骨女雖婚亦為妾媵宰相家不絕祿奴僮三

千人甲兵牛馬猪稱之唐書儒理王九年改六部名仍

賜姓梁部姓孝部梁部姓崔部梁部姓孫本彼部姓

鄭漢祗部姓裴習化部姓薛設官十七等伊伐哈伊

尺食正食改休食大河食阿哈一古食沙食級伐食

大奈麻奈麻大舍小舍古士大島小島遠但事必與

眾議號和自一人異則嚴凡邑在內曰咏評外曰邑

勒唐書至法興王始令外官携家之任又王女二人各



高句麗南界置漢朔溟三州朔州所屬霜陰文山等

縣皆安邊地羅之北界度及安邊高麗怡祖統合三

韓而只以鐵嶺為界金宗瑞疏見輿地勝覽在臣錄等書成宗十四年

分國內為十道而朔方道有永興等地高麗史等書下同永

興以此則為東女真所據故也穆宗八年東女真寇

登州遼安德宗二年命杯韶創置北界關城起自國內

城義州抵靉邊定平耀德和州並永興東傳海契丹來爭却

之文宗二十八年東女真請內附肅宗八年正月東

女真盈歌打即河骨遣使來朝二月遣林幹攻女真敗

績女真闖入定州定平宣德關城殺掠蓋女真或附或

下侍中判尚書吏部事知軍國重事吳廷寵為尚書  
左僕射參知政事遣內侍郎中韓徽如貴詔書告身  
及紫綬鞍具馬二匹至雄州公賜之尹瓘吳廷寵凱  
還王命其鼓吹軍衛以迎之賜尹瓘爵鈴平伯加吳  
廷寵攘寇鎮國功臣號蓋自二月以後女真無月不  
侵復遣尹瓘吳廷寵征之度翼等戰于杏州王思謹  
等戰于咸州皆克之振俊京王宗之等力戰敗之互  
相勝負四年東蕃女真烏雅東阿骨打使東弗史額  
等來朝請還九城七月會宰相樞密省諸司文武三品  
以上問還九城可否皆曰可引見東弗等許還九城

之罪屢言之不聽只刺功臣號初議者以女真弓漢  
里外連山壁立唯有瓶項一小徑若設關城塞之則  
其患永絕及攻取水陸道路無涉不通且拒地太廣  
九城相距連遠穀洞荒蕪賊既失窟穴連歲未攻城  
鎮險固雖不能猝拔然調兵戡守中外駢援遂至破  
撤矣尹瓊使林彥作英州誌曰新置六城一曰鎮東  
軍威州大都督府兵民一千九百四十八丁戶二曰  
安嶺軍英州防禦使兵民一千二百三十八丁戶三  
曰寧海軍雄州防禦使兵民一千四百三十六丁戶  
四曰吉州防禦使兵民六百八十丁戶五曰福州防

也明宗六年金人以兵犯涇陰縣其後女真蒙古

元頻數未寇高宗四十五年漢陽趙暉定州人卓青

等殺東北西兵馬使慎執平以松州遠址反降于蒙

古置戛城總管于松州稱哈蘭府以趙暉為總管出

沒寇抄遂失東北諸城恭愍王時以我桓祖為頭

城千戶民得安業五年東北西兵馬使柳仁兩與

桓祖合兵攻拔頭城元總管趙小生暉孫連伊板嶺

北即磨於是盡復和永定平登長平預高文

川文宜源州及宣德元興寧仁平耀德永靜定鎮

咸州以址哈蘭咸洪獻洪原三撤青等地陷虜九九十

瑞青洪咸七州

金宗瑞啓辭見海東野言名臣錄

七年因古址等后

城于公岭鎮内防禦所孔州

或稱孔州

之地以地有德安

兩陔且肇基之地改名慶源別鏡城府龍城以址屬

之

見海東野言與地勝覽等書下同

太宗九年移治于蕪多老古

營十年女真入寇韓興富戰死郭承祐敗績遂遷兩

陔于咸州徙民戶併于鏡城遂虛其地鏡城以址陷

為賊藪幹朵里孟哥等乘隙入居開大明將立衛於

孔州之地十七年割鏡城豆籠耳塊遠址之地復置

慶源於富居站設柵以守之

今富居

為都護府 世宗

十五年兀狄哈攻幹木河

今會

殺藩胡孟哥帖木兒

於兩社及北青府多甫社迤北等地置利城縣 唐

宗元年又割吉州長德山以北置明川縣蓋會鍾興

稔野言以龍城即所謂新設四邑也時議者或欲以石碁

為界或欲以龍城為界十六年大雪十七年大疫十

八年虜入慶源大掠人畜浮言扇動至謂宗瑞以有

恨之人力開不可成之役其罪當誅 世宗以為予

非好大喜功祖宗疆土不可棄我狄不可處塞內况

且滿江迴抱我疆天作之險甚合古人大江為池之

意明斷赫然至仁決冷悅以使民民忘其勞宗瑞力

贊之以為成大事者不顧小弊建大業者不計小害



一義也據長江之險有守禦之便二利也以龍城為  
界者反之今葶胡自滅自竄乘機布置不勞一兵不  
傷一民克復舊疆永建新邑其與前朝之暫得旋失  
者不可同日語矣終始擔當遂成此路關防 世宗  
嘗曰雖有寡人若無宗瑞不足以辦此事雖有宗瑞  
若無寡人不足以主此事罷史云初尹瓊啟女真等  
吉州等城中書舍人朴景仁與瓊書曰武功已成國  
威已振宜戢師旅以圖萬全更深入賊地列置城池  
今雖已成後恐難守瓊不聽用卒如其言蓋先春嶺  
在豆滿江北七百里而瓊立碑嶺上以為界此其闕

改永吉道十六年降永興為和州陞咸州為咸興府

置觀察使管改咸吉道 睿宗元年以李施愛叛吉

州州降為縣 成宗元年以咸興叛亂殺觀察使降

為郡移管永興改永安道 中宗四年復咸興府移

管改咸鏡道領府一大都護府一都護府十二郡四

縣四官負則觀察使一管在咸興兵馬節度使三南

道管在北青北道管在鏡城而行管在鍾城一則觀

察使兼水軍節度使三觀察及南北節度使兼中宗

南道兵馬虞候二都事一兵馬評事二中宗朝審

藥三南北道檢律一土官自正五品至從九品准

1870